

오피니언

월/요/광/장

안진



방학이나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 공 북돋 후다닥 일을 해치우고 각자 자신의 거처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별난 가족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간병인을 쓸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자리를 버리고 거처를 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는 경제적

‘정상 가정’ 고정관념을 깨자

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장을 위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내하더라도 사회적 삶의 피로에서 오는 긴장을 관리해 주는 정서적 기능을 가족이 얼마나 잘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가족 디아스포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까닭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

찾지 않으면 어렵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장기에 꿈꾸어온 가족의 이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의 가족은 형태와 기능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가족관계까지 통째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하는 추세다.

노부모 부양관도 바뀌어 노인 단독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부양과 같은 보살핌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보살핌 노동의 공급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변화하는 현실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 국가의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은 한 단위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족의 보살핌 역

할을 도맡아온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이상적인 정상가족의 신화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작년 가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족정책기본법의 핵심취지이다.

현명한 가족정책은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현실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 노동을 국가가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소쇄원 관리·보호대책 재검토 필요하다

조선시대 민간 정원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담양 소쇄원(瀟灑園)의 보호·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한다.

소쇄원 관람객들은 주차료를 낸 뒤 또 다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 가사문화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리체계도 문제다. 관리기관인 담양군과 관리·소유자인 양씨 문중이 현재 주차료 징수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에 임의로 매표소를 설치했고 ‘관리단체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군과 문중 측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소쇄원 내 각종 시설이 망가지고 붕괴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관리에서 작은 실수는 민족유산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담양군과 문중 측은 소쇄원은 특정 단체나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 민족의 소중한 자산을 명심해야 한다.

파업으로 생산차질액 3조원 넘었다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액이 크게 늘어나 3조324억원에 달하고 수출 차질액도 20억달러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괴가 심각한 곳은 대형 사업장이 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생산차질액이 전체의 50.0%와 29.3%에 달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대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국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계도 사회적 비중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잦은 파업으로 생산과 수출차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회사와 노조가 공멸할 수 있다.

법조칼럼

류재규



미국의 배우 패리스 힐턴(Paris Whitney Hilton)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45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로스앤젤레스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역에, 사람이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위험운전 치사상’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한 때

전을 단순한 ‘실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수 한자를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2만5천150건에서 2만6천460건으로 5.2% 증가했다. 2005년 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2.4%로, 최근 4년간 늘고 있다.

기고

강박원



최근 우리 사회에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교사가 갑작적인 급식지도를 했다고 항의하는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에다, 학부모가 문제학생의 징계를 놓고 충돌을 빚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울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는 ‘스승은 일로써 가르치고 덕으로 깨우친다고 하였다. 일로써 가르친다 함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치를 터득하게 한다는 뜻이고, 덕으로 깨우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덕을 쌓아 모범을 보이고 매사를 덕으로 교화시켜 준다는 뜻이다.’

올바른 스승상 정립하여 교권 회복하자

스럽기 그지없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스승관이 무색할 따름이다.

만 쌓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울곡의 성학집요를 탐구해 보면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이 상호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제 스승의 올바른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가 절실할 필요하다.

광주일보를 읽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꼭 확대·보완되길

광주일보 6월 20일자 19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읽고 쓴다.

고 있지만 요식업계와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마침 국회 등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확대·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無等鼓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는 당신과 나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루스벨트는 명감독이자 배우인 오슨 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화 배우 출신으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올랐던 로널드 레이건, 그가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됐을 때 한 기자가 “어떤 주지사가 되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레이건은 “모르겠다. 주지사 역은 말아본 적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프레드 톰슨



다’라는 비판으로 돌아왔다. 레이건 스스로도 동시대의 잘나가던 배우 에럴 플린에 빗대 “나는 B급 영화계의 에럴 플린이었다”고 자조했다.

실개한 배우였지만 레이건은 정치인으로서 대성공했다. 미국인들은 큰 키에 시원스런 미소, 절도있는 몸짓, 명료한 대사 전달력을 갖춘 레이건에게 환호했다.

의원이 주인공이다. ‘노웨이아웃’에서 CIA국장, ‘사선에서의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그가 연기한 인물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하는 일만큼 임금 지급해야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당장 유치원을 그만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다.

학업 성취도에 따른 시장놀이, 자선바자회, 운동회, 병원놀이 등 각종 행사에 맞는 분위기로 탈바꿈 하는 인테리어 공사 또한 큰 노력이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